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 부실...막대한 혈세 추가투입 우려

시뮬레이션 운행 용역 중 드러난 문제점들

정거장 간 길이 짧고 곡선구간 많아 광주시청~광주역 간 속도 늦어져 시간 당 운행대수 줄어...480여억원 투입 전동차 28량 추가 구입할 판 배차간격 4분→5분 30초로 늘어...전문가 “애초 검토 과정서 잘못 설정”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에 쓰일 전동차 28대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차량 배차 간격(운전시각)이 애초 기본 설계 과정에서 제시됐던 것보다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차량 추가 구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뿐 아니라 자칫 전체 공사비 증액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험·시운전, 운전·운영보고서와 관련, 시뮬레이션 운행 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주시청~광주역 간 표정속도가 애초 설계보다 늦어진 점을 확인했다.

표정속도란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소요시간(정차시간 포함)으로 주행 거리를 나눈 수치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은 1단계 구간인 경우 기본 설계 당시 표정속도를 시속 33.46km로 예측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3%나 감소한 시속 25.88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사측은 2호선 1단계 구간인 경우 정거장과 정거장 간 길이와 짧고 곡선 구간이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 등은 표정속도를 기준으로 전체 구간 길이, 정거장 수, 승차감·안전성 등을 감안해 배차간격을 4분으로 정해 각종 공정을 진행한 만큼 배차간격 조정도 불가피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 지적이다. 출·퇴근 시간대 4분 간격으로 지하철을 출발시키기로 했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당장, 기본설계를 유지할 경우 배차간격이 5분 30초로 늦어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시간 당 운행대수도 15대에서 10.9대로 줄어든다. 차량 예비율(운행차량 대비 예비차량 비율)도 국토교통부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10%)에 못 미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법적근거’ 지침상 차량예비율을 10%로 보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경우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연구’에 따라 갑작스런 사고와 장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행 스케줄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정한 차량예비율(12%) 기준을 따르는 지를 감독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애초 기본설계대로 배차 간격을 4분으로 맞춰 차량예비율(을 따르려면 당초(33편성·66량)보다 14편성(28량)을 늘려 운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차량 구입비에 차량기지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480억원으로 광주시 등은 추산했다. 배차간격을 4분 30초대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이마저도 1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차량 구입비 외에 전체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차간격이 전체 구간, 정거장 수, 승차감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속도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최초 기본설계가 부실해 공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3공구 207정거장 공사현장. 1월 말 기준 공정을 36%대인 도시철도 2호선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비 증액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이장호 교수는 “정거장이 늘었거나 운행 구간이 증가하는 등 조건에 변경이 없는데도, 배차간격이 늘어났다는 것은 애초 검토 과정에서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측은 “배차간격을 정하는 게 모든 공정을 고려해 설정되는 것인데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광주시측의 설명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1단계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하철 운전·운영 계획에 대한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지난 2017년 기본설계 당시 검토가 부족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당시 발표명령 거부故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처분 취소...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청장에 권고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시민을 향한 발표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지시 거부로 강제퇴직 당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경찰 업무추진단은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 100개월분을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업무추진단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이회성 계엄사령관의 강경 진압 요구에 “경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광주 시민들을 향한 발표 명령을 거부했다. 이 일로 5월 26일 직위해제된 안 치안감은 “지시에 불복했다”며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 안 치안감은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988년 10월 10일 명을 달리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전 후보 현수막 훼손 잇따라 광주동부경찰, 경위 파악 나서

광주 도심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현수막이 잇달아 훼손돼 경찰이 경위 파악 나섰다.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동구 동명동 거리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현수막이 일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약 3시간 전인 오전 9시께에는 지산동 한 교차로의 노동당 이백운 대선후보의 홍보 펼침막 고정근이 잘려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각각 현수막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정황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 교육청직원 2심도 실형

전남교육청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자 3명 중 1명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기,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브로커도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면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

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트라 매트 원단의 영사용 스크린보다 저렴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암막 전용 원단으로 롤스크린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제품 수량이나 규격도 계약 내용에 미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4100만원을 수수했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대지 15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 매매가-평당 1200만

소유자. 010-3605-5000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